

학교생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 학교와 학원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요.

고2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어느 정도 진정되던 코로나19가 또다시 위세를 떨치고 확진자가 늘면서 개학 직전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일정도 방향 전 반았던 지침에서 바뀔 것 같은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에 따른 학교와 학원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최은경(44·서울 강서구 화곡동)

A 학교는 밀집도를 최소화해 유지하고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은 운영을 중단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일일 확진자 수에 따라 단계가 정해집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이면 1단계, 50~100명 미만이면 2단계, 100~200명 이상이면 3단계가 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인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 2단계로 격상되면 학사·학원 운영과 방역에 제한이 심해집니다.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담당 장학사는 “중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1로 유지하고 고등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해야 한다. 만약 고등학교에서 수능 시험을 앞둔 고3이 매일 등교해 수업한다면 나머지 학년의 등교 일수를 조정해 밀집도를 맞춰야 하는데, 이는 각 학교 교장의 재량에 따른다. 등교하지 않을 때는 원격 수업이 진행된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준수하며 자가진단을 실시해 증상이 있을 시 등교를 중지하는 방역지침은 1단계와 같다”고 말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 학원은 어떻게 운영될까요?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담당 장학사는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은 운영을 중지해야 한다. 300인 미만 학원은 마스크 착용이나 등원 시 체온 측정 등 방역 수칙을 지키고 학생 간 사방 1m 거리 두기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MORE TIP

교내 학생 밀집도를 전체의 3분의 2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적용됩니다. 등교 인원 감축은 앞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수도권·부산 지역 학교만 9월 11일까지 시행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엄중해지면서 모든 교육청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다만,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보충수업이나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대면 등교는 인원 축소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고위험 시설 12종에 대한 운영도 중단되는데 PC방, 노래연습장, 뷔페 등이 포함됩니다. 3단계로 격상 시 방역 역량과 유행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방역 지침이 내려집니다만 해외의 '첫다운처럼 학교 폐쇄 등 극단적인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큼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취재 김지영 리포터 janekim@naeil.com



입시

A 교육과정이 다양해 학생들이 보다 더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을 위해 2018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시작, 2019년에는 354개교, 2020년에는 728개교로 확대 지정·운영함으로써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구·선도학교는 고교학점제에 가까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의 운영 사례를 토대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과 학교 혁신 사례를 발굴하는 등 운영 모델을 설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광주 빛고을고 박은미 교사는 “연구학교는 현재 교육과정에 고교학점제를 좀 더 파격적으로 도입해 문제점을 파악,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빛고을고는 고3의 경우 과목에 따라 균을 나눠 그중 몇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는 ‘선택군’을 모두 없애고 기초, 교양, 탐구 과목에 관계없이 학생의 선택에 따라 9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연구·선도학교는 또 다양한 소인수 과목을 개설하고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교육과정 다양화에 힘써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최대한 확대·보장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는 일반 학교와 어떻게 다른가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3 학부모입니다. 얼마 전 설명회에 참석했더니 인근의 고등학교 중 2곳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라 수시 실적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가 무엇인지, 일반 고등학교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고교학점제 선도학교가 수시 실적이 좋아졌다는 말이 일리가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박민희(49·서울 강서구 화곡동)

MORE TIP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공통 과목 이수 후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 과목을 이수하도록 했지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이 쉽지 않습니다. 경북 선택여고 류봉균 교사는 “과거에는 대학 입시에서 성적의 절대적인 수치가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학생의 선택 과목 이수 이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제시·개설할 수 있는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교사와 학교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자신에게 필요한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찾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취재 박민아 리포터 minapark@naeil.com